

고추냉이 먹들이병 친환경 농자재 선발

배경 및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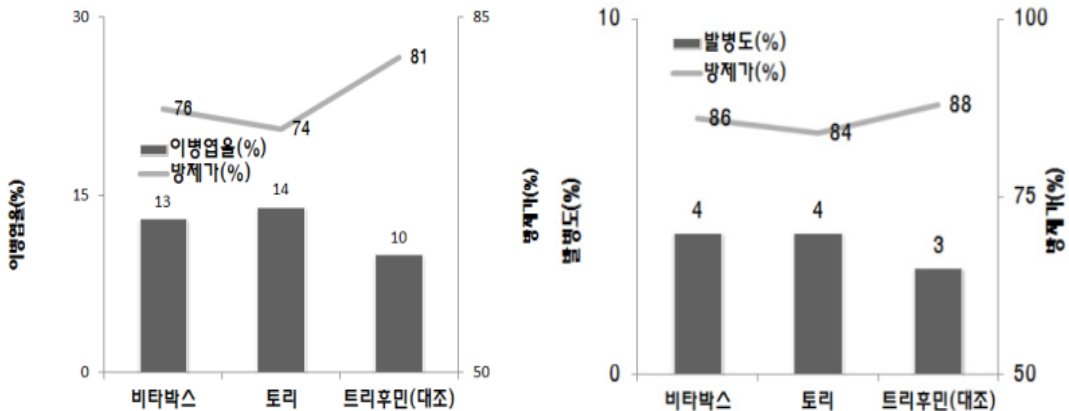
- 고추냉이 먹들이병은 잎과 줄기에 흑반을 형성하여 상품성을 저하시킴
- 친환경 병해관리 유기농업자재 사용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필요

활용 내용

- 고추냉이 먹들이병 친환경 방제제 선발 : 비타박스(비타팡), 토리

〈약제이용〉

- 적용장소 : 쌈채소용 고추냉이 비닐하우스내 발재배 사용
- 약제조제 : 비타박스(비타팡) 500배액 또는 토리 1,000배액
- 살포시기 : 먹들이병 발병 초기 10일 간격 3회 충분히 살포(늦은 오후)



【 처리 자재별 방제가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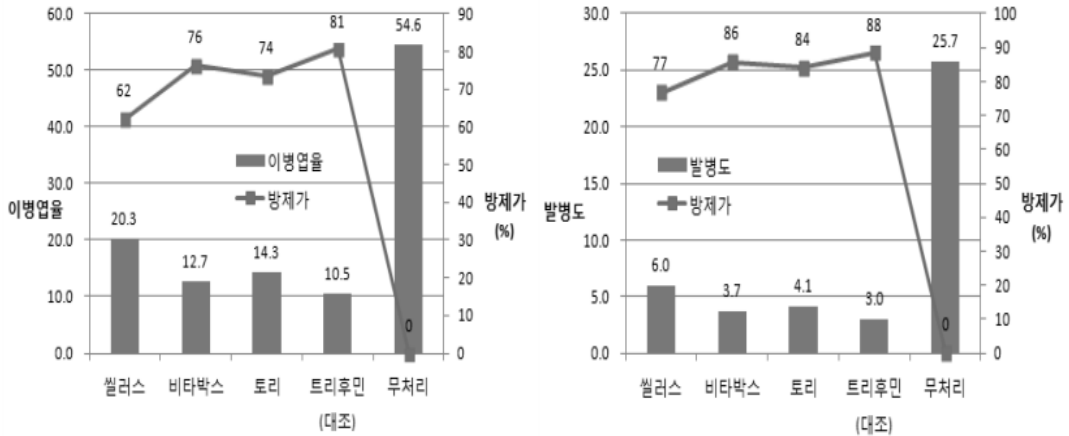
파급효과

- 쌈채소용 고추냉이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요구 충족에 따른 품질 경쟁력 확보로 농가 소득 제고



〈세부 연구결과〉

○ 약효



【 처리 자재별 방제가 】

- 약해 : 시험포장 2개소(태백, 평창) 모두 약해증상 발견되지 않았음
- 선발된 병해관리 유기농업자재 세부내용

상표명 (자재명)	농촌진흥청 공시번호	자재종류	제조회사	유효기간
비타박스 (비타광 : 식물추출물)	공시-2-4-053 (공시-4-2-011, 08-유기-4-035)	병해충관리용	(주)비아이지	2018.4.26
토리 (미생물제제)	공시-2-4-058 (공시-4-2-002, 08-유기-4-031)	병해충관리용	(주)제일그린산업	2018.4.26